즉시 배포용: 2016년 4월 4일 주지사 **ANDREW M. CUOMO**

ICYMI: CUOMO 주지사의 NY DAILY NEWS 컬럼: 15달러 최저 임금 및 유급 가족 휴가로 뉴욕이 미국 경제의 정의를 수립하고 전국의 귀감이 되는 사례 확립

오늘 오전, New York Daily News는 뉴욕이 최근 통과시킨 15달러 최저 임금 및 12주 유급 가족 휴가 계획이 어떻게 근로자 가정에 대한 공정성과 기회를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내용과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남겼는지 설명하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컬럼을 발표했습니다.

이 컬럼은 온라인(여기)으로 볼 수 있으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전국의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산층과 노동층 가정이 경제적으로 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악화의 원인이 된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가적 정체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초편파주의적 성향을 낳았습니다.

올 선거 시즌 동안 일부 정치인들은 이 시민들의 불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명하고 책임이 있는 행동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주가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정부의 약속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보장한 적은 없었지만 근면성은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나 더 나은 미래에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은 보장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업료 인상, 치솟는 생활 비용, 계급 상승의 부재는 모두가 신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이러한 불의에 대한 완벽한 사례입니다. Franklin Delano Roosevelt는 최저 임금이 어느 정도 생활을 보장했지만 최저 임금의 실제 수익 잠재력은 1970년대 이후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 혼란스러운 현실에 불평을 늘어놓고 희생양을 찾는 데 연연하지 않고 기본 추세를 역전시키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국가 예산에는 대학 수업료를 더 저렴하게 조정하고 똑똑한 최고의 학생들이 뉴욕주에서 자신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1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당국은 70년 만에 중산층 세금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될 재산세 조정 및 소득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집중하고 다른 주에 유권자의 경제적 분노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줄 두 가지 진보인 15달러 최저 임금 및 12주 유료 가족 휴가가 될 것입니다.

당국은 소득 불평등과 생활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이 나라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정책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득과 기회에 대한 기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유익을 줍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세대에 걸쳐 한 가족의 계급이 상승하거나 추락하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동이 불편한 경제 계층인 영구적 하층 계급의 탄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최저 임금으로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빈곤의 삶 속으로 몰아냅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신생아 출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다음을 고려했을 때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와 해당 가족의 현 세대를 경제적으로 승격시킬 뿐 아니라 나중 세대가 경제적 기회라는 계단을 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본인은 뉴욕시에 있는 한 최저 임금 노동자 여성에게 그녀가 얼마나 버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시간당 9달러였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Bronx로 이주한 Central America 출신 이민자였습니다. 본인은 그녀에게 시간당 15달러로 임금을 인상한다면 수천 달러는 아니더라도 수백 달러가 더 생기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정도 돈이면 자기 자신이 아닌 두 어린 딸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돈이면 자녀를 위해 학교에 갈 때 입는 옷과 생일 선물을 사주고 잘하면 몇 년 동안 대학 입학금으로 그 중 일부를 저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상의 투쟁과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도 그러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벽돌을 쌓고 이후에 강철 빔을 세울 당시 미래에 대한 희망은 Empire State를 정의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뉴욕 시스템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욕은 이곳에 이주한 이민자들의 모든 세대에 환영의 팔을 벌렸습니다.

뉴욕은 영어는 구사할 수 없지만 Queens의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가난한 이탈리아 부부가 자신의 아들을 주지사로 키우고 그 이후 손자를 낳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찾으려면 뉴욕이 그 젊은 여성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달성한 성과를 바라보십시오. 하루를 어렵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가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들은 중산층 또는 최상층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분단 및 극단에 대하여 Washington의 정체성과 정치를 벗어야 합니다. 이제 미국 기회에 대한 기본적 전제와 약속을 되돌리기 위해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뉴욕은 시민들이 두려움을 없애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진보적 태도로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다른 주들이 따라와야 할 때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